

5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4.5.30.(목) 오후 2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서신석, 강건기, 진한수, 박화선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8인(안호림, 허인순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국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손영준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5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공영언론으로서 제작 역량을 갖고 있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청자 위원으로서 연합TV의 발전을 지켜보는 것은 자랑스럽고 즐거운 일이다. 계속 파이팅 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이번 달에는 음주 뺨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관련 보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사건은 이번 달 9일 밤 11시 40분경 일어났다. 연합뉴스TV는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속보와 스트레이트, 리포트로 보도해 왔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임에는 분명하나,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소식인지는 의문이다. 많을 때는 하루에 20건 이상 보도된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계속 선정되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일탈 행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전통 매체의 퇴조와 함께 24시간 뉴스채널 보도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런 막장 사건을 전 국민이 지금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우리 사회와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의문이다. 연예인 뉴스는 일반적으로 시청률을 올리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연합뉴스TV는 시청자들이 반드시 보고 알아야 할 심층 뉴스를 좀 더 살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동안 시청자위원회에서 제기한 지적 사항 중 개선한 대목도 있고,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시청자위원회에서 그동안 제기한 문제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기를 당부드린다.

▲ 신지홍 보도국장

가수 김호중 사안 자체가 유명한 연예인이 관련된 사안이어서 자칫 옐로우 저널리즘 쪽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갖고 있고 내용도 좀 충격적이며 재미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사가 되는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매체가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보도했던 사안입니다. 저는 초창기 보도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사안이 너무 선정적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취재와 기사 작성, 송출 과정에서 자막과 앵커멘트 등 여러분야에서 굉장히 데스크킹을 철저히 하면서 조심했습니다. 선정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희는 김호중 씨가 출두할 때에 수갑을 찬 부분을 불러 처리했습니다. 다른 방송들은 그걸 그대로 보여줬어요. 다만, 거의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사안이 실시간 보도된다고 느낄 정도로 보도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안이 연예인의 일회성 단순 사고를 넘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경종을 울린 사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도 채널이다 보니 보도가 많아 보였지만, 나름 굉장히 담담하게 차분하게 보도를 했다 이렇게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서면 제출)

- 출연자 진행건, 5월 9일 뉴스센터 13 경제읽기 코너: 진행자가 출연하는 패널에게 호응을 하고 싶으면 "예" 또는 "네"라고 보통 하는데 방송에서 "응", "으" 이런 추임새로 진행하시는데 경어체를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석이면 상관없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썼으면 합니다
- 편성에 대한 의견, 5월 14일 라이브투데이를 보는데 앞 시간 뉴스와 같은 내용으로 리포트, 단신 여러 번 방송을 보니 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 자막 스크롤 오타, 5월 15일 뉴스10에서 시작화면 광고 제공자막이 새마을금고로 나갔는데 바른표기인 새마을금고로 오타 체크 부탁드립니다.

▲ 보도국 해당 부서(서면 답변)

- 말씀하신 내용 진행자에게 유의하라고 주문하겠습니다.
- 아침 시간이라 새로운 기사가 많지 않고 거론하신 아이템은 전날 있었던 주요 뉴스들이라 매 시간 편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담, 코너 등이 있지만 핵심적인 리포트, 단신은 뉴스 가치 면에서 빠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지루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적하신 사항 즉시 수정했습니다. 앞으로 오타자 더 주의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허인순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허인순 위원(서면 제출)

기후 플레이션의 습격...먹거리 물가 '출렁', [경제읽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여도를 품목별로 살펴봤습니다. 농·축·수산물이 약 26.5%, 외식이 약 14.4%를 차지했습니다. 먹거리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41%가량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먹거리 물가는 최근 우리나라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오죽하면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에 '기후 위기'를 합친 '기후 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여름철 강수량이 많거나 적을 때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근원물가 변동률은 미미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후변화로 인한 먹거리 물가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부족해 단기적인, 중장기적 소비자 물가 비교 연구가 더 세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보도였고, 향후 기후 플레이션에 대한 심층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뉴스TV에서 모니터링 역할을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도국 해당 부서(서면 답변)

각종 이상 기후로 인해 과일, 채소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가 있어 '기후 플레이션'으로 제목을 잡고 다양한 보도를 통해 기후와 물가의 관계를 조명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며 물가를 자극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처럼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따른 먹거리 물가 변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신석 위원

- 연합뉴스TV의 NEWS 17 2024년5월18일 "최저 임금 미만율 발표 두고 갑론을박...회의 전부터 신경전" 보도, 5월이 되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 임금 협상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시기에 최저 임금 첫 1만 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내용으로 뉴스 보도를 한 것은 시기적절했다고 생각이 든다.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의제인 만큼 뉴스 보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데, 경제 단체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한 분야로 꼽히는 돌봄 노동자가 주로 속한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주장과 노동계의 지난 2년간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국노총 정책 차장의 "(경총의) 미만율과 영향률 통계는 최저임금위원회조차도 통계의 불안전성을 인정..."에서 미만율과 영향률에 대한 뜻을 부연 설명이 있었다더라면 더 뉴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만율은 신규 적용될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액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 영향률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혜근로자의 비율(예측치)로서 수혜 근로자 수를 적용 대상 임금 근로자 수로 나눈 값.

- 연합뉴스TV의 토요와이드 2024년5월18일 "시작도 하지 마"...청소년 도박 예방 주간 첫 운영 보도, 온라인 사행성 게임 등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 예방 주간으로 지정한 사항과 행사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난해 도박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청소년이 171명으로 2022년 74명에서 1년 사이 2.3배나 늘었고,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청소년 역시 2019년 93명에서 2023년 167명으로 80%가량 증가하여 청소년 도박의 위험과 심각성을 그래프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잘 보도한 것 같다. 최근 들어 연합뉴스TV의 청소년에 대한 교육 이슈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도 건수를 살펴보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보도가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공영방송 연합뉴스TV가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체계적으로 기획취재 보도한다면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심각성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청소년들의 도박 근절 및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신지홍 보도국장

- 말씀하신 임금 관련 미만율, 영향률, 전문용어를 저희가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쓴 것은 데스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의 언어는 최소한 중학생 수준에서 봐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정도의 방송이라야 퀄리티있는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 도박 예방 주간 첫 운영 관련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는 6월 3일부터 개

편을 할 예정입니다. '뉴스 잇'이라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젊은 기자 앵커가 중심이 돼 문제 있는 현안을 쫓아가서 전달하는 코너가 포함됩니다. 저희가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건기 위원

- 논술 면접서 대학 수준 문제 낸 한양대 등 8곳 지원 중단 보도 관련 5월 8일 뉴스 03에서 논술·면접서 대학 수준 문제를 낸 한양대 등 8곳 지원 중단을 보도하였습니다.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단 결정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런 보도는 짧게 보도할 것이 아니라 지원 중단 결정의 배경과 이유를 길더라도 상세하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4년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 단계평가의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대학별 고사의 문제점과 정부의 지원 중단 결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해당 대학들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도 함께 균형 있게 보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학가 반전 시위 보도들 관련, 4월 24일부터 연합뉴스TV는 반전 시위를 보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대학가의 격화되는 반전 시위 보도, 독일 대학가의 반전 시위 보도, 유럽과 중동으로 확산된 반전 시위 보도 등 전 세계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 시위의 현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위 관련 기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시위의 원인, 참여자들의 의견, 그리고 정부나 관련 기관의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마스-이스라엘 분쟁 원인, 반전 시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포함시켜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방송해 주면 좋겠습니다.

▲ 신지홍 보도국장

- 논술 면접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단신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안 자체가 사실 단신 처리로 그치지 않고 좀 심층적인 리포트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당시는 사회부가 다 의대 정원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서 여력이 없지 않았었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앞으로는 유념하여 보도 하겠습니다.

- 대학가 반전 시위 보도는 저희가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뉴스룸에서 지금 가장 약한 파트가 국제쪽입니다. 국제 기사를 잘 다룰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진한수 위원

- 범인 도피처 된 동남아...'꼼수'에 국내 송환 험난, 해당 보도는 앵커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범죄자들의 주요 도피처가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일명 '김미영 팀장'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도 9년간 도피 행각을 이어가던 박 모 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가 필리핀 현지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국내 송환이 지연된다는 점을 노려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를 썼다'고 전합니다. 기사는, 필리핀 도피 사범이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박 모 씨가 수감돼있던 필리핀 교도소의 허술한 관리 감독은 범죄자들이 국내 송환을 피하려는 이유로 해석된다는 구체적인 분석까지 내놓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향후 외교적 신뢰와 양자 간 사법 체계 공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입니다. 사례의 소개와 배경의 분석, 향후 대응 방안

에 대한 조언까지 취재와 보도가 매우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보도에서는 필리핀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라고 소개하여 다른 동남아 국가들 역시 범죄 도피처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다소 우려가 되었습니다.

- 교제살인 피해자 138명...보호·처벌 법안은 계류중, 해당 보도는 최근 강남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사건을 소개하면서,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살해된 여성의 수가 138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교제 살인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지만 현실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쓴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발생한 교제 살인의 피의자 김레아 씨의 사진이 화면에 10초가량 나오는데, 해당 사례의 소개가 짧게 언급된 후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피의자의 얼굴이 필요 이상으로 화면에 길게 노출되어 있어 보도 내용에 집중하기 어렵고 보도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교제 폭력 검거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구속률은 2%에 불과하고, 별도의 법이 없어 주로 폭행이나 협박죄가 적용되는데 이는 반의사 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 라면서 교제 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전합니다. 이어 변호사가 이런 현실에 대해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한다거나, 만나러 가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기보다는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이 돼서..."라고 짧게 소견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불분명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다소 혼동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제 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마주치거나 심지어 함께 생활하는 등 해당 범죄 특유의 '관계성' 때문에 추가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는 별개로 합의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많고, 그러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또는 이러한 상황을 보완할 별도의 법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를 통해 보충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 신지홍 보도국장

- 말씀하신 동남아권은 제목도 잘못 뽑고 기사도 잘못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거에 필리핀 외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을 기자가 염두에 두고 기사를 작성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더 데스크를 철저하게 봐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피의자 머그샷 얼굴 공개 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역시 인권이 있는 만큼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적절하게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얼굴을 10초나 노출한 것은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들며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변호사 인터뷰 부분은 혼동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인터뷰 과정에서 요구하거나, 다음 문장에서 부연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추후 관련 사건 발생 시 충분히 반영해서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화선 위원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시민 수준 우롱 지자체의 졸속 '공공 조형물'은 왜? 5월20일, 전국 지자체에서는 공공 조형물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조형물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만들고 이를 치적으로 삼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꼽히며 철거되거나 흉물처럼 방치되는 사례도 많이

있다. 유럽의 경우 역사적 의미와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기억을 바탕으로 설치된 공공 조형물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민에게는 자부심이 되기도 한다. 무분별한 지역별 공공 조형물 난립은 순간의 화제성은 되지만 노후화 및 지역민들의 애정없이 오히려 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훨씬 많다. 이번 뉴스프리즘 보도는 이러한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에 충분한 보도였다. 다만 지역 공공 조형물들이 각 시, 도, 군 단위까지 설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많은 실패 사례도 있는 반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는 조형물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상반된 사례에서 볼 때 어떤 차이가 성공과 실패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국내에 잘된 조형물로 광화문의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연작 '해머링 맨'이 잠깐 소개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보도가 국내 조형물은 실패 사례로 소개되고, 해외 조형물은 성공 사례로 소개되고 있어 국내에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조형물들도 다 예산 낭비의 실패 사례로 비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심층 분석을 통한 후속 방송을 통해 각 지역에 사랑받는 혹은 애물단지가 된 공공 조형물들의 소개를 통해 공공 조형물을 준비하는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 신지홍 보도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습니다. 한강에 흉물이 된 조형물들에 관한 제보와 문제의식을 갖고 준탐사 성격의 취재로 만들어진 콘텐츠였습니다. 근데 이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은 비판과 고발성 취지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잘한 사례보다는 잘못된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성공한 경우의 사례도 들어 양쪽을 비교하며 취지를 좀 더 부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성희 위원

- [이슈5]는 '지금 이 시각 주목할 만한 이슈'를 살펴보는 코너로 5가지 이슈를 10분 내외의 분량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보도 채널의 특성상 24시간 많은 내용의 뉴스들이 반복되어 소개되고 있어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을 간략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5가지로 선정된 이슈들이 관심을 가질만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이슈들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많은 논란을 불러온 '김호중 뺑소니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5.17 이슈5에서 짧은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콘서트를 강행하고 이를 지지하는 팬덤 문화에 대해 유사 사례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슈를 잘 선정해 신속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코너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 신지홍 보도국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슈5'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보통 시청자들의 경우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볼수 있는 다이제스트 성격의 뉴스들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너가 사실 잘 먹힙니다. 저희가 취지를 살려 좋은 아이템 선정해서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 이상헌 위원

- 경제계 소식을 간략히 소개하는 비즈&(앤) 코너를 봤습니다. 여러 기업의 해외수상이나, 친환경 활동, 업무협약 등 굉장히 다양한 소식을 담았고, 기부나 봉사활동, 후원 등의 사회 공헌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 뉴스가 다루기도 어렵고, 시청자들도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이처럼 간략한 기업 소식 전달이 보다 쉽게 경제 분야를 터치할 수 있다는 점, 더구나 사회 전반에 기업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유익한 코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많이 발굴해서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 최근 다뤘던 경제 뉴스 중에는 리포팅이 상당히 깔끔했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 삼성·SK, 연구개발·시설투자 모두 늘려'(5/19), '제4이통 자금력 우려 지속...스태이지엑스 "문제없다"'(5/21) 등은 현황과 이슈를 명확히 짚어주고, 전문가 인터뷰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보도 내용을 짜임새 있게 잘 풀어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2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밀도 있게 이슈를 정리해 보도했다는 점에서 연합뉴스TV의 역량을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주거나 어색함을 느낄만한 헤드라인이 몇 개 있었는데요. 지난 15일 '쿠팡 김범석·두나무 송치형, '총수 동일인' 지정 피해'라는 보도의 경우 동일인 지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지정을 피했다는 것인지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사찰 찾은 두 부분에 차량 돌진..남편들 숨져'(5/16)라는 보도에서는 굳이 두 부부나 남편들이라는 표현을 써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뉴스에서는 헤드라인이 시청자의 관심을 끌거나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좀 더 섬세하게 작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지홍 보도국장

- 비즈&(앤) 코너는 경제부에서 기업들의 현안과 트렌드를 통해 다양한 기업활동을 시청자에게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주로 기업의 일방적인 홍보 보다는 기부 활동이나 후원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 반도체 보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경제부에 반도체 기사에 전문성을 가진 기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 총수 동일인 지정 피해는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부부, 남편의 표현은 기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려다 보니 뽑은 제목인데 굳이 쓸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부분으로 보입니다. 제목, 헤드라인을 뽑는 데 있어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 [뉴스포커스] 연휴 늘려 경제 활성화?...다시 불붙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논쟁(5.8.)
5월 8일 어버이날과 관련해 연합뉴스TV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어버이날 행사 첫 참석, 여당 의원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주장을 비롯해 '어버이날인데...쓸쓸한 홀몸 노인.취준생은 감사 마음만'과 같이 주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조명, '고물가에 달라진 어버이날...카네이션 대신 먹거리로', '어버이날 선물 1위는 용돈...10만~20만 원 가장 많아' 등 다양한 내용의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뉴스포커스에서는 하재근 문화 평론가를 모셔서 고물가와 경제

불황으로 어버이날 모습이 바뀌고 있는 세태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10분 남짓의 시간 동안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현재가 어떠한지를 잘 흥미롭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꽃이나 선물보다는 현금이나 상품권 등 실속이 우선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어버이날 선물 문화가 점점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논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 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무래도 이달의 주요 기념일인 어린이날에 주목되다 보니 관련 뉴스 보도량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합뉴스TV의 다양한 뉴스 보도와 집중 조명에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이슈 발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최대한 많은 이들이 이를 널리 알리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지흥 보도국장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어버이날 관련 기사를 집중 보도했었습니다. 한 이틀 걸쳐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아이템을 찾아 비중있게 보도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거나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